

전 세계
따뜻한
나눔



당신의 꿈에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이 사는 세상
따뜻한 마음



CONTENTS

HANJAE FOUNDATION 2021

Overview

04 한재공익재단 핵심가치

06 사업 소개 및 실적

01 재단 소개

10 출연기업소개

12 설립자 소개

02 시상 사업

16 한재선행상 소개

17 한재선행상
격려사

03 장학사업

20 인재상

22 고교 장학사업

24 대학 장학사업

04 장학생 활동

28 고교 장학생 활동

30 대학 장학생 활동

32 한재 장학생으로부터 온 편지

36 한재 장학생 선발 학교 및 장학생들

바른 인성의 인재를 양성하고,
참사람을 시상하는

한재공익재단

한재공익재단은 평생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얻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재공익재단은 인성이 반듯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이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큰 인재 [한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사회변화에 기여하여 귀감이 되는 참사람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욱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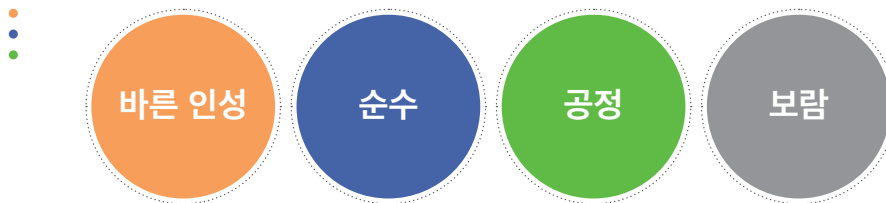
한재공익재단은 2012년 설립되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재장학재단"으로 출발하였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2021년 8월 시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재단 이름도 재단 목적에 맞게 "한재공익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재공익재단 핵심가치

인성을 중시하는 재단

한재공익재단은 고교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두 분의 장학 위원님들께서 직접 서울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과 학생과의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인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가정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재선행상도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적 삶을 사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시상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수상후보자님들을 찾아 뵙고, 심층 대화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CORE VALUE



순수함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재단

한재공익재단은 공정한 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재단 정관 제5조 3항에 아래와 같이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의 공명정대함을 위하여 재단의 이사 및 감사, 장학위원 등 재단 관계자들의 친인척 및 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없다.”

새로이 시작하는 한재선행상도 우리 사회에 공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공명 정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및 실적

한재공익재단 사업 소개

장학 사업

고교 장학사업 : 매년 서울시 고등학교(특목고/자사고 제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발굴하여 1년 동안 총 360만 원(생활지원금)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장학사업 : 고교 한재 장학생들 중에서 인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선발하여 4년 동안 학자금 전액과 생활지원금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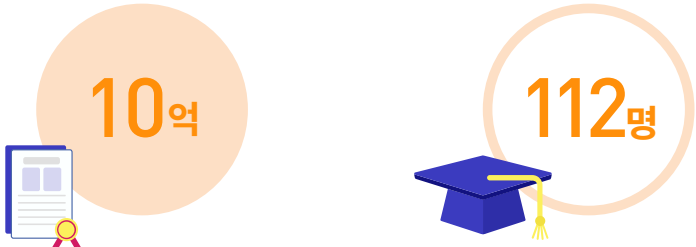
시상사업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여 귀감이 되는 참사람을 발굴하여 연 2억 2천만 원의 포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학사업 현황(2014년~)

대학 장학사업



고교 장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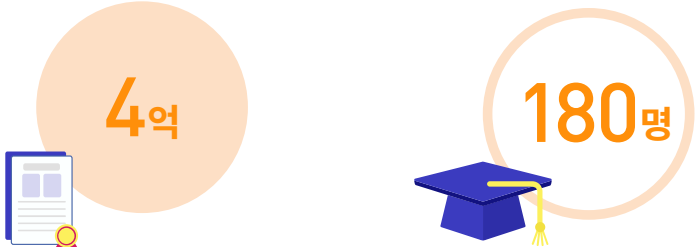


표 (단위: 백만 원)

구분	기부금	인원	장학금액
2014	90	10	42
2015	170	25	97
2016	100	30	119
2017	11,525	32	134
2018	-	46	224
2019	-	69	343
2020	-	79	397
2021	-	86	423
누계	11,885	377	1,779

국가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큰 사람

한가람(큰 강), 한울(큰 울타리), 한밭(큰 땅) 등과 같이
'한'은 '크다'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를 재목이라고 합니다.

재목은 건축물을 바로 세우는 기둥입니다.

한재공익재단은 국가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 지탱하는 큰 사람, 큰 인재, 한재를 육성합니다.

Part
01

재단 소개

10 출연기업소개

12 설립자 소개



출연기업 소개



파스텔 그룹

www.pastelgroup.co.kr

혁신적인 자산 개발 사업을 통해 자산 가치의 극대화를 창출합니다.
저희 PASTEL은 20년 동안 쌓아온 주거시설, 상업시설 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기존의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에서 도시개발 및 부동산 자산 All Value Chain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스텔 시티

www.pastelcity.co.kr

파스텔시티는 반포 / 방배 / 양재 / 관악(서울대) / 과천 / 사당을 핵심 상권으로 하는 광역화된 상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외식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인의 만남과 회식의 장소 뿐만 아니라 젊은층, 가족단위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광역화된 상권의 외식 랜드마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고객 연령층은 젊은층, 직장인, 중장년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포괄적인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스텔 골프클럽

www.pastelgolf.co.kr

국내 최고 시설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로 펼쳐지는 '도심 속의 페어웨이'란 모토 아래, 국내 최고의 골프클럽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위하여 파스텔그룹에서 2003년 6월 오픈하였습니다. 파스텔 골프클럽은 도심 속에서도 탁 트인 시야와 넓은 스윙 공간, 소음 없는 정숙한 분위기 그리고 실제 필드와 가장 유사한 페어웨이 및 퍼팅장 구성 등으로 회원들께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실전 감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진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우승한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파스텔 골프클럽 소속 프로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레슨은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골프문화공간입니다.

“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니
당당하게 살아라.

또한 잘된 일은
남의 탓이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

재단 설립자 **이 한 오**



공익재단 설립자 이한오님은 3가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 첫째** 남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 둘째** 남(시대)에게 당하지도 마세요! 그러려면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열린 사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 셋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주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되세요.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제 스스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개인 사업을 하다가 부를 창출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요,
저는 법인 사업을 영위한 후 개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부를 많이 쌓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

사회에 받은 은혜를 세금으로 나라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겠지요.

또 하나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재공익재단을 세우고 재산을 출연한 것입니다.
똑똑한 인재가 아닌 바른 인성의 인재가 결국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르게 이끄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Dream

꿈을 응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열린 사고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Part
02

시상 사업

- 16 한재선행상 소개
- 17 한재선행상
격려사



한재선행상 시상 내용

1. 개요

한재 선행상은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분을 포상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귀감이 되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상 내용

대 상 : 1인 상패 및 상금 7천만 원

본 상 : 3인 상패 및 상금 각 5천만 원

3. 자격 및 요건

- 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이웃을 위해 선행과 모범적인 봉사로 헌신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사
 - 시민 정신으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청년
 - 새로운 봉사/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장년
 - 우리 사회에 기부와 선행, 나눔과 배려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 ②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 없는 인사
- ③ 한국인 국적자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

4. 후보자 추천

-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장 및 중간관리자의 추천
- ② 전국 자원봉사 단체장 및 중간관리자의 추천
- ③ 전국 사회복지기관 단체장 및 중간관리자의 추천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장 및 중간관계자의 추천
 - 사회 저명인사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추천
 - *중간관리자: 팀장, 부장, 사무국장

한재 선행상 격려사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백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 소유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산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사회를 위한 책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학문 및 예술적 가치는 정신적이어서 누구나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고 소망스러운 것은 인간애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윤리와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주어진 물질과 정신적 가치도 마침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재공익재단에서 그동안 계속해 오던 미래의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과 더불어 「한재선행상」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의 뜻과 고마운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대신 맡아주는 감사의 심정입니다. 장학사업의 성과가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되었듯이 '한재선행상'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선하고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단과 수고하는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 김형석 교수 :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백년을 살아보니」, 「행복연습」 등 저술

Passion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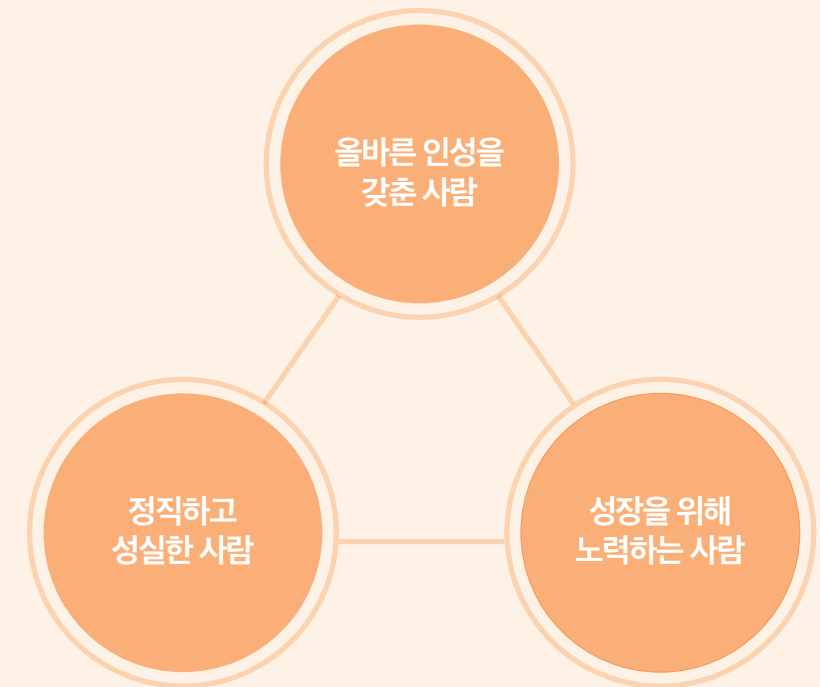
장학사업

- 20 인재상
- 22 고교 장학사업
- 24 대학 장학사업



평생 주택건설사업을 일군 신념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바른 인재를 키웁니다

단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을 뛰어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바른 인성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 줄 아는 젊은이입니다.
한재공익재단은 그런 인재를 키우고 바르게 양성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인을 배려하고,
자아존중과 배려심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세상에는 공짜와 비밀이 없다는 정직한 마음과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람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배움을 통한 자기개발과 인간 성장을 위해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매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1년 동안 총 360만 원(생활지원금)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 장학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특목고 / 자사고 제외)에서 바른 인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인성교육으로 대학교 4년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1year

3,600,000



대학교 장학생 선발

대학 장학생들에게 4년 학자금 전액과 생활지원금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고교 한재장학생들 중에서 인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선발하여 4년 동안 지원합니다.



1month

700,000



Future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하기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Part
04

장학생 활동

- 28 고교 장학생 활동
- 30 대학 장학생 활동
- 32 한재 장학생으로부터 온 편지
- 36 한재 장학생 선발 학교 및 장학생들



장학증서 수여식

한재공익재단의 고교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로 공익재단 관계자와 대학장학생 선배들이 함께 모여 축하와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간담회 & 진로 멘토링

간담회

매년 하반기에 대학장학생들이 고교장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 알려주고 아낌없는 진솔한 조언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멘토링

고교장학생들의 꿈과 연계된 진로분야별 모임과 대학장학생 선배와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활동입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한재공익재단의 대학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로 장학재단 관계자와 대학장학생 선배들이 함께 모여 축하와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1박 2일 캠프

한재 대학장학생 전체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와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를 들으며 성장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창의적 리더와의 만남

창의적 리더와의 만남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을 갖춘 창의적 리더를 초청하여 그 분의 삶과 인생,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듣고 질문하며 함께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학장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입니다.

진로 분야별 모임

선후배간 진로 분야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2기 장학생 이원욱

“
마치 가족처럼 힘들었던 순간에도,
기뻐던 순간에도 늘 함께해준 한재공익재단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졸업한 한재 장학생 2기 이원욱입니다.

흑자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공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지만,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때때로 그 소중함을 잊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재 고교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가족에게 그러했듯, 한재공익재단에서 베풀어주신 커다란 은혜를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재공익재단은 마치 가족처럼 힘들었던 순간에도, 기뻐던 순간에도 늘 함께해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자와의 대화, 진로 강연 등 각종 교육의 기회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서의 말씀은 많은 함의를 갖는 듯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무탈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실은 많은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재공익재단과의 만남과 한재장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재공익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의 고민을 자기 일과 같이 신경써주시고 매년 변함없이 성심껏 보살펴 주신 팀장님께도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과 사모님의 존함을 합하여 탄생된 ‘한재’라는 소중한 이름을 응용해 만든 이행시를 덧붙이며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
재: 재능과 인성을 빛내는 그날까지

졸업생 2기 이원욱 올림



4기 장학생 김예진

“
한재를 통해 경험한 모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며,
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재 장학생 4기 김예진입니다.

최근 들어 저녁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편지를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쉴 곳이 되어 준 가족들, 곁을 지켜준 많은 친구들, 지식 이상의 것을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한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의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한재공익재단 덕에 꿈꾸던 대학교에 무사히 입학하고, 생활비를 버는 것 이외의 일에 시간을 쏟게 되고, 감히 만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소중한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재를 통해 경험한 모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며, 스스로 이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들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잘 받고 대단한 곳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기보다, 지금 내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며,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재의 도움을 잊지 않고 꼭 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한재의 구성원답게 행동하고 발전하겠습니다. 한재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4기 김예진 올림



6기 장학생 고예주

“
한재공익재단에서 받고 배운 많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 6기 장학생 고예주입니다.

제가 한재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성장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한재공익재단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은 세계 식량 보전기구에서 일하면서 작물의 최대생산량을 예측하고, 환경에 맞게 작물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성 작물 생산을 통해 기아 및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석사, 박사 학위, 언어능력, 실무경험 등 많은 자본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학년인 지금부터 차근차근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 대학에서 공부해보면서 작물생산 기술 및 지혜를 배워와 우리나라 기술에 적용해보며 농업의 발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재 TOFEL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재도 사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꿈도 비용’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금전적, 정신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고교 장학생에 이어 대학 장학생이 된 지금까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신 한재공익재단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학 공부의 순기능은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래밍도 계절학기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전 지금 가슴속에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재공익재단을 통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인생 철학을 배웠습니다. 또한 장학생들과의 만남 및 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행사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배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한재공익재단에서 받고 배운 많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물개량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을 이끌고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작물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만 달려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중간에 멈춰 주변을 둘러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 꿈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 건 바로 한재공익재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기 고예주 올림



7기 장학생 이운태

“
한재공익재단의 가르침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재공익재단 대학 장학생 7기 이운태입니다. 아직 긴 인생을 살진 못했지만 앞으로 제 일평생의 방향성을 결정할, 제 삶의 중심축이 될 가치관을 발견하는데 까지 큰 도움을 주신 이사장님과 공익재단 담당자분들께 부족한 글솜씨지만 말로는 못다 표현할 감사의 뜻을 한 편의 글 속이라도 꼭꼭 담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고3 생활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망하던 학문 탐구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결국 열망하던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것은 비단 한재공익재단이 제게 준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도움까지 저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싶어도 고등학교 도서관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관련 무료 서적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공익재단의 경제적 지원은 제게 원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매달 문자를 통해 보내주신 명언들, 즉 정서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성공할 앞날을 미리 음미하기도 하며 점차 해이해지던 마음을 한 데 모아 제 꿈을 이전보다 공고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스스로를 통제하기 힘들어지곤 했지만 저를 믿고 바라봐주신 공익재단의 끊임없는 관심이 저를 받쳐줬기에 이에 힘입어 제 자신에게 더더욱 냉정해질 수 있었고, 이덕에 스스로에게 관대해져 게을러지는 상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겐 진로에 대한 것 외의 또다른 목적 의식이 생겼습니다. ‘나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저 혼자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고자 노력한다고 한들, 타인과의 조화가 전제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비단 진로 분야에만, 즉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만 국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나아가 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인식으로 발전시켜 사회 전반의 공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타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한재공익재단의 가르침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향후 인지심리학 교수가 되었을 때, 제가 공익재단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전달받아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것 처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여 개개인에게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나니, 요즘은 살아가는 나날들이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으로 느껴집니다. 한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앞날을 지켜봐 주십시오. 겸손하고 우직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하며 다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삶의 이유를 일깨워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기 이운태 올림

120명 | 95개



고교장학생 선발시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한재공익재단의 장학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재울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동양고등학교	석관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선일여자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등촌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성덕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경인고등학교	면목고등학교	성보고등학교	인현고등학교
고려대부속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공항공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세현고등학교	잠일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문정고등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수명고등학교	중화고등학교
광신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송실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광영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구암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청량고등학교
노원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신목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단국대부속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태릉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상명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대영고등학교	상명대부속여자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해성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상암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홍익대부속고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홍익대부속고등학교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서울세종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